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어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지부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 하면 하늘은 할 일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렸을 적부터 자기 능력이나 역할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정해 진다는 말이다. 신념에 따라 성공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시를 한 편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가야 한다.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은 정말 하기 싫다. 이 세상에 수학학원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글을 보내 왔다. “수학이 그렇게 싫어?” 하고 물었더니 정말 하기 싫다는

거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목이 수학인데 싫다고 밀어내면 점점 더 멀어지지. 그러지 말고 좀 더 친한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거 한 번 해 보.”

“네”하고 금방 대답한다. 단순한 성격인 유형의 아이일수록 깊게 생각하기 싫어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멀리 밀어내게 된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을 너무 싫어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포기하게 되었던 예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공부 잘 하는 친구들 외에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므로 해서 포기하는 삶을 대부분 살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국영수 위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언제가 아는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 제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서점을 내게 되어 날마다 책을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소설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직업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고 말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A로 두고 살아도 그 지점

에 못 미치고 사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그렇더라도 그 근방에서 사는 의미나 보람을 느끼고 산다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린 날부터 하기 싫은 것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놓으면 한쪽만 치우치는 불가분현상이 일어 날 것이다.

이토록 삶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공부를 어찌 소홀 할 수가 있겠는가. 『언제나 우린 널 믿어』 베스페리의 그림책에서는 우리는 더 높이 올라 갈 수 있고 더 깊이 땅을 팔 수 있고 세상을 탐험하고 씩씩하게 우뚝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믿는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혹시 어른들이 닫히게 만들지는 않은 지 깊이 반성해 본다.

평화로운 삶을 믿는다고 해 놓고 전쟁중이고, 친구와 사이 좋게 나누며 살아야지 해 놓고, 싸워서 얻으려는 어른들. 그 속에서 제일 피해 보는 것은 힘없는 어린 아이들 아닌가.

우리가 너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이 믿을 수 있게 어른들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신나게 놀면서 행복한 결말을 믿으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러한 세상.

독자투고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16년 9.12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국민의 지진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24년 ‘지진 안전 주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6년 경주지진은 규모 5.8로써 대한민국의 지진 관측 이래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한반도 내륙지진으로는 1980년 평안북도 지진 이후 36년만의 대형 지진이다.

지진이란 지구 암석권 내부에서 갑작스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지진파를 만들어내며 지구표면까지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크기에서부터 매우 격렬한 크기의 지진까지 다양한 강도로 일어나며 쓰나미, 산사태나 화산활동까지 2차 피해가 발생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현상이 발생한다.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를 한데 묶어 지진 재해라고 한다.

지진 재해는 1차 재해와 2차 재해로 나뉜다.

1차 재해는 강한 지진동에 의한 지표나 지하 구조물의 파괴, 지반의 붕괴, 해일로 인한 가옥이나 선박 유실 등이 있다.

2차 재해는 화재 수도 전기 가스 통신망의 파괴 생활의 혼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주지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부상자 8명을 낳았다.

물적 피해로는 아파트 천장 탈락, 울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고장, 울산 변전소 변압기 1대 정지등 모두 102

건이 신고되었다. 지진이라는 재난은 우리나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평소 재난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지진 안전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행동요령을 평소 익혀두도록 하여야 하며,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과 같은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 안전주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재난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동수** (보성경찰 경비반보과 경위)

서석대



전남일보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연재하는 <정부인공지능 활용 사업과 연계한 광주 추진과제> 기획기사 1편이 오늘부터 연재된다. 그간 지역에서 AI에 관한 기사는 여러번 보도 됐으나 이번 본보의 기획은 판교테크노밸리와 미국 미시간대학교를 방문해 그곳을 돌아보고 광주와 연결점을 찾아내는 기획이다.

첫번째는 AI와 광주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집중했는데 왜 광주에 AI가 오게 됐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전남일보가 제안하는 AI 미래**

본질만 이야기 하자면 AI이전 광주형 일자리건, 혹은 복합쇼핑몰이건 공통점은 하나다. 광주의 부흥이다. 광주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붙잡고, 광주에서 살아도 결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일자리가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기에,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기업이 오려면 그들로 하여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나 기술, 지원 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 혼자서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국회의 힘

이 당연하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간 광주는 여러 산업들을 미래 산업으로 꿈꾸며 도전해 왔다. 자동차가 그러했고, 그 앞에는 광산업이 존재했다. 또 백색가전에 미래를 걸기도 했다. 허나 지나고 보니 다들 근시안적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있다.

AI는 어떻게. 이것이 정말 광주의 미래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남일보가 내놓고자 이번 기획이 탄생한 것이다. 조금만 스포일러를 공개하자면, ‘노력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가 추진해온 AI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이 없다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검불 같은 것이다. 2단계 사업이 존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위기와 고뇌를 맞닥뜨려야 한다. 문제는 이런 2단계조차 우리는 현재 나아갈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언론이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특정 정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젊은 기자들이 논의하고 취재하며 탄생한 이번 기획이 부디 광주의 미래로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은 아니더라도 지도 정도는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社說

당장 ‘압사’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다니

안전대책 전무한 ‘라온페스타’

159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29일 2주기를 맞는다. 이태원 참사는 미흡한 안전 관리와 국민의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지난 26일 광주 동구 총장으로 인근에서 열린 ‘총장상권르네상스 라온페스타’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안전대책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전남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총장상권르네상스 라온페스타’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이었다. 당장 행사가 총장으로체육국 앞에 집중되면서 좁은 골목에 ‘군중 유체화’가 생겼지만, 이를 통제하는 안전요원은 6명 밖에 없었다.

이번 행사가 당장 ‘압사 참사’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무대가 바닥에 낮게 설치되면서 가까이서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

찰에 신고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느 순간 참사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주최 측은 혼잡을 안내하거나 통로를 지정하지 않아 자칫 누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공연을 보기 위해 멈추는 사람과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충돌하기를 반복하다 끝내 인파의 흐름이 멈추는 ‘군중 유체화’ 현상도 발생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시와 동구, 광주도시공사 모두 2년 전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잊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명경시 풍조와 안전불감증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독버섯이다. 10월은 축제의 계절로 그만큼 각처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관계기관은 허술한 ‘총장상권르네상스라온페스타’를 본보기 삼아 안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행사에도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년 전,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심 울리는 농산물 절도 기승 막아야

수확철 맞아 농민 불안 높아

수확철을 맞은 전남지역에서 농산물 절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극심했던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다. 2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산물 절도는 △2021년 86건 △2022년 84건 △2023년 6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41건이다.

농산물 절도는 주로 농촌 도로 주변이나 농로, 마을 궁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판장에 보내기 위해 쌓아두거나 잠시 보관한 사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인적 드문 시간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거둬가기도 한다. 실제 지난 봄 딸기 가격이 급등하자 강진지역 농가 2곳에서 겨울철 딸기 120kg이 출하 직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확기철 농산물 범죄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범죄 사각지대가 많아서다. 인적이 드문데다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검거율도 낮다.

농산물 절도 사건 피의자 검거율은

같은 기간 45.3%→56%→58.7%→61%로 파악됐다. 매년 발생 건수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올해는 농산물 값이 급등하면서 절도 범죄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작물을 도난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출된 장소에서 농작물 건조행위를 삼가고 보관창고는 잠금장치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을에 낯선 차량이 나타나면 번호를 적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안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도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율적인 CCTV 설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농작물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순찰 및 야간 탄력순찰을 지정하는 등 범인 검거와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을 흠친 거나 마찬가지다. 피해를 본 농가는 실의에 잠길 것이며,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수확기 농촌 치안 강화가 절실하다. 경찰은 농촌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절도 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농산물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